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방철린  
칸 건축사사무소(주)  
1948년 12월 대전 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6년)



Interview

어릴 때 길에서 주은 쇠조각 유리조각으로 집을 만들고 놀다

내 고향은 대전이다. 초등학교시절까지 대전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만들고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기 전 한국전쟁 직후였는데 마땅히 가지고 놀 장난감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할 때다. 길바닥에는 유리조각이나 탄피, 쇠조각이 많았다. 고작 이런 것이 장난감 대체물이었다. 이런 걸 주워 가지고 집을 지으며 놀았던 기억이 난다. 대전에서도 대흥동 1구였으므로 대전에서는 중앙이었는데 길은 거의 포장되지 않았었고 차도 별로 없었으므로 기껏해야 우마차가 고작인 신작로를 빼고는 길 전체가 놀이터였다.

집 앞 골목 땅을 오목하게 파고 이곳에 유리조각을 섞워 속이 드러다 보이게 하고 쇠조각 등을 여기저기에 놓아 집을 만들곤 하였다. 그리고는 개미나 땅벌레 등을 잡아 이곳에 놓고 들락날락하는 움직임을 드러다 보고는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바꿔보기도 하며 놀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외국영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열 살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극장을 하는 집과 친구이다 보니 날 마스크트로 극장에 자주 데려갔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영화를 보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길, 마리루다, 세계를 그대 품안에, 나이가가라, 누구를 위하여 등을 올리나 등 50년대 중반에 한국에 들어온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이므로 영화를 이해한다기보다 인상적인 장면들과 영화배우 이름정도가 머리에 남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영화들이 유일한 외국문물의 접촉통로였던 셈이었는데, 미국으로부터 구호물품을 받아쓰던 시절이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각인시키는데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 전쟁 직후의 국민전체가 가난했으므로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말고는 미술이며 음악이며 무얼 따로 배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가는 때라 고학년이 되면 공부만을 해야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 하였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미술점수는 100점을 줄 수 없다며 98점을 주셨다.

미술전공은 배고픈 직업이라고 어머니가 말리다

선생님은 넉지시 미술반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다. 어머니께서는 배가 고픈 직업이라고 말리셨다. 학과 과목으로는 화학 대수도 잘 하였지만 특히 물리와 기하 과목을 무척 좋아했다. 물리 기하시간이 되면 가슴이 뻐 정도였다. 적성 과목으로 보아 공대를 가야 하는 길로 생각을 하였는데 무슨 과를 갈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과 재과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공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림 그리고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 복도에 걸려있는 작은 액자들을 보다가 문득 무언가 발견하고 한

참을 드러다 보았다.

투시도법으로 된 그림을 보고 건축을 전공으로 택하기로 마음먹다

투시도법이 가는 선으로 드러나 있는 건축물 그림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는 건축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다. 학교 복도에 있는 작은 액자 그림 속에서 장차 직업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졸공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른들에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전자과나 스케일이 큰 토목과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점점 굳어져가 건축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건축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졸업 후 첫 직장이 김수근 선생의 '공간' 이었다

첫 번 직장이 제대 후 바로 입사한 김수근 선생의 '공간' 이었다. 군대에 근무 중 마지막 휴가를 25일을 나왔을 때다. 휴가 나온 다음날 건축 설계경기에 제출할 건축 패널 작업요청이 있었는데, 마침 귀대 하루 전이 제출일이라 휴가기간 모두를 여기에 쓰고 귀대 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획안을 제출한 홍순인 선생이 공간의 실장이었다. 제출된 프로젝트는 세종문화회관이었고 홍순인 실장의 작품이 가작을 차지했다.

마지막 휴가를 투자한 덕에 비교적 쉽게 공간에 입사할 수 있었다. 공간에 입사하여서는 밤낮없이 열심히 건축설계를 하였다. 광복 30주년 기념전시관, 서울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서울대 환경예술관, 잠실체육관 등을 설계하였고 공간사옥 2차 증축부분을 담당하였다. 허기도면이 있었지만 그건 형식이고 실제로는 도면이 없이 시작하여 매일 매일 도면을 그려서 현장에 나가 1대1 모형 만드는 기분으로 건축을 하였다.

이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지는 준공할 때까지 김수근 교수를 포함하여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아래층에 없던 기둥이 위층에서 갑자기 생기기도 하였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위층에 기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콘크리트가 막 부어진 벽체 거꾸집 속으로 철근을 위에서 꼭 눌러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 층, 한 층을 새로운 그림을 그려 시공하였다. 이때는 중동 불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였다. 공간사옥 증축도 이것과 맞물려 있었다.

정림건축으로 옮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직장을 옮기려는 유혹의 손길이 뻗어왔다. K상사에서 엔지니어링회사를 만들고 디자인실 근무자를 찾고 있었는데, 유혹에 빠져 1년을 그 곳에서 보냈다. 덕분에 결혼은 하였는데 일이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결국 1년 만에 이곳을 빠져 나왔다. 1979년 2월 정림건축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정림은 일이 많았다. 입사 2년 후 한국은행 본점설계를 원정수, 지 순 교수팀과 함께 하였는데,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설계 중단 통보가 내려져 그만

집 자체는 사람을 위한공간이라 기능이 중요하지만 때로 기능보다  
 생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공간이 곧 건축의 '허'라 본다.  
 시간의 전쟁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숨 돌릴 여유 없이  
 뿔에 꼭 짜여진 일과 속에서는 오랫동안 실기가 힘들 듯이 공간도 마찬가지다.  
 뿔에 짜인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느슨함이 오히려  
 생애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거라 본다.

두었다.

이화여대 교사들, 부경대학교의 교사들, 수안보 경찰대학 마스터플랜  
 과 본관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 신라대학교 마스터플랜과 도서관을 비  
 롯한 교육동들, 한국투자신탁사옥, 모토롤라사옥(강남구청역 사거리) 등  
 엄청난 일들을 하였다.

설계경기도 하였는데 당선율이 상당히 높았다. 한국전력 부산지사,  
 한국전력 광명지점, 부산문화방송사옥, 대룡강남타워(강남대로에 있는  
 쌍둥이빌딩), 대덕과학문화센터 등이 설계경기에 당선하여 하게 된 프  
 로젝트이다.

#### 1991년에 인토킨축으로 독립하다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마지막으로 1991년에 정림건축을 나와 인·토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크지 않은 규모의 사무실에서  
 소수 정예요원으로만 사무소를 운영할 생각으로 여러 제안을 뿌리치고  
 뛰쳐나오게 된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다 보니  
 원래 갖고 있던 설계 컨셉이 약해지고 마감방법도 애초의 계획과 달라  
 지는 등 대형회사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보였기 때문이다.

소수정예부대요원으로 소수의 설계일을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수행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정림에서 나오기 전  
 설계하였던 건축물들은 나중에 준공되었는데, 설계당시의 생각과는 전  
 혀 다르게 준공되어 다시 한 번 감리는 설계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도 대덕과학문화센터는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을 받게 되  
 었다.

#### 독립 후 대형백화점 설계를 맡은 것이 시간을 벌게 하다

인·토건축은 백문기 소장과 같이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정림에서는  
 큰 프로젝트만 다루다 보니 큰 프로젝트 킬러로 알려지게 되어 여기저  
 기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요청에 응해야 했다. 개업 후에 이런 저  
 런 일을 하다가 대전OO백화점 설계를 맡게 되었다. 그때 당시 5만평  
 이면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런 저런 일로 지연되어 4년여 동안  
 설계를 하였다. 한동대 기숙사 같은 중급 규모의 프로젝트도 하였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소형프로젝트인 다세대주택으로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다

평소에 대형 프로젝트만 만지다 보니까 작은 프로젝트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였다. 학생원룸, 다세대주택  
 등등... 연남동 스텝은 설계를 다 마쳤다가 설계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  
 건축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설계하는 정열을 보였다. 연남동스텝  
 등 스텝 시리즈, 하늘마당 I·II 여기에서 연거푸 한국건축가협회 작  
 품상을 받게 되었다. 사무소를 시작하면서부터 작품 속에는 정신이 살  
 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건축은 종합 학문이어서 기본적으로

과학과 미학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철학과 역사와 도시  
 와의 호흡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삶이 담겨질 집이라면 충분한 포용력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축사-사람의 욕심 이전에 건축이 가져야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위(無爲)'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허  
 (虛)'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IMF를 맞아 모든 일 들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다

1997년에 IMF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이 넘쳐 그렇게 바쁘던 게  
 어제였는데 거지말 같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중단되었다. 건축사사  
 무소 운영을 시작하고 미처 지리가 잡히기 전이라 더욱 더 어려운 시  
 기를 맞았다. 그 고난은 2002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  
 1999년이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이 되었는데, 건축문화의 해 집행위  
 원회 기획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였지만 그 행사 일원이었던 과천 현대  
 미술관에서 가진 '한국건축 100년 전' 행사위원장으로 행사준비를 진행  
 하였다.

준비기간은 1년으로 아주 짧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고생을 하였다.  
 짧은 기간의 준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와 평은 나쁘지 않았다.  
 덕분에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 미제루(주택)로 여러 개의 상을 받다

이즈음에 미제루라는 아주 작은 주택설계 일이 들어와 열심히 몰두  
 할 기회가 생겼다. 강화도 민통선 안에 있는 주택인데 거의 매주 현장  
 에를 열심히 다니며 감리를 하였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로 생각지도 않  
 았던 건축상을 여러 개 받게 되었다.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 한국건축  
 문화대상, 아카시아 우수건축상 금상... 이 프로젝트로 신문사와 방송국  
 의 수많은 원고요청과 출연요청을 받아야 했고 영화사에서의 영화촬영  
 장소 대여요청 등에도 시달릴 정도였다. 많은 건축학도들이 이집을 보  
 기위해 지방에서도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집이 공개되는 것이  
 싫은 미제루 건축주는 '미제루 접근 금지령, 취재 금지령'까지 내렸다.

조그마한 시골집 미제루는 저어지고 10여년 이상을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아주 힘들었지만 그러는 동안 IMF경제위기는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다시 설계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원주 제일교회 수련원,  
 산빛마당(200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논현동 수산빌딩, 청담동  
 유현빌딩, 연하당(2004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광동동주상복합, 덕  
 윤웨이브사옥 등을 하였고, 파주출판도시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교육  
 과학사, 북아십일사옥, 중앙입시교육연구원, 여원미디어의 탄탄스토리  
 하우스, 해원출판사, 광문각 등의 프로젝트를 하였다.

## 인터뷰 후기

그는 부지런하다. 학교 출강도 끊임없이 하며, 또 사무실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건축사 중의 하나이다. 우리만 해도 연필로 그리는 세대에서 캐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캐드는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처지인데 반해 그는 모니터에서 캐드도면의 간단한 수정까지 하고 포토샵까지 할 수 있다.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만의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터뷰-최동규 건축사지편찬위원회 위원장

### 소형프로젝트로 받은 많은 수상이력

주책으로는 미제루(199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아천상, 아카시 아우수건축상 금상), 연하당(2004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산빛마당(200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이 있고, 다세대주택으로 연남동스텝(1996년, 한국건축가협회상), 하늘마당(1999년, 한국건축가협회상), 그리고 논현동 수산빌딩, 원주제일교회수련원, 파주출판문화단지 지어진 탄탄스토리하우스(2006년), 북이십일사옥(2005년) 등이 있다.

### 소형사무소의 장점은 디자인의 일관성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같이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바라는 바가 아니었고 3명의 건축사가 같이 작업을 하며 서로 돕고 있다. 직원은 10여명 정도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무소의 장점은 많은 일들이 단순한 경로를 거쳐 수행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명료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계과정에서도 계획안의 방향결정이나 디자인 결정하는 단계가 많지 않아서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도 한 명의 건축사가 주관하고 디자인해 나아가야 디자인의 일관성도 생기고 컨셉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좋은 건축물들은 1인의 건축사가 주관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직원 하나하나가 설계의 많은 분야를 관장하므로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좋아지는 장점도 있다. 축구로 말하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 학교에 출강하면서 눈여겨본 학생들을 직원으로 선발 한다

학교에 줄곧 출강하기에 학생들 중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으면 봐서 오게 한다. 다른 사무소의 경험 있는 사람은 굳어져 있어서 환영하지 않는다. 학생 때부터 눈여겨보았다가 포트폴리오를 보고 뽑는다.

우선은 건축이 지어질 땅과 그 땅을 담고 있는 주변을 잘 이해하고 집을 앉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우리 선인들의 생각인 '무위'가 필요하다. 인위적인 배치나 공간구성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밖에서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은가. 집 자체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 기능이 중요하지만 때로 기능보다 생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공간이 곧 건축의 '허'라 본다. 시간의 전쟁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숨 돌릴 여유 없이 틀에 꼭 짜여진 일과 속에서는 오랫동안 살기가 힘들 듯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틀에 짜인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느슨함이 오히려 생애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거라 본다.

한국건축계의 문제는 대량의 일들이 몇 개의 사무소에서 한정적으로 처리되는 현실과 더불어 시공자를 먼저 고르는 턴키제도가 문제다.

한국건축계는 지금 지구중심으로 향하여 나있는 커다란 구멍 속으로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요즘 집이 지어지는 단계를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일들이 골고루 건축사들에게 돌아가서 좋은 건축을 위한 눈에 안 보이는 선의 경쟁도 재미있게 되어 물도 좋고 시장도 좋았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우선 하고 다음에 시공자를 골라야 하는데, 몇 년 전엔가 시공자를 고르는 입찰제도가 최저가 입찰제도로 바뀌면서 건축을 지어야 하는 관에서 오히려 최저가 입찰방법으로는 부실공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 턴키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관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턴키베이스나 BTL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일이 큰 덩어리로 묶이고 웬만한 건축사들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 별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일 좀 해보겠다는 간 빼놓은 건축사들은 건설사 문 앞에 줄서서 자기와 일해 달라고 조르는 형편이 되고, 이러다 보니 건축사 체면이 말이 아닌데 한 술 더 떠서 턴키입찰에 내는 건축 계획안도 여러 개를 만들어 건설사를 보여주면 건설사가 고른다고 한다.

하기야 떨어지든 붙든 설계비를 건설사에서 받아 식구를 먹여 살리려니 어쩔 도리가 없지만... 더구나 무슨 이유인지 턴키나 BTL의 단위를 점점 더 키워 실력(?)있는 사람이 아니면 웬만한 사람은 접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건설사건 건축사건 이런 대형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심사위원 대상자 평소관리... 지금 대한민국 건축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국내의 대역섯 개 회사가 한국건축물량의 90% 가까이 한다니 나머지 건축사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찌질한 일반 남아 나머지 건축사들의 입맛을 다시게 한다. 일이 귀하다 보니 약은 건축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조그만 프로젝트도 이런 저런 경쟁을 붙여 좋은 안은 안대로 받고 일은 건축사 보수를 싸게 해주겠다는 이한테 간다. 이제 이마저도 점점 줄어 1990년대보다 낮게 받고도 일을 한단다. 더러는 그냥해주겠다는 건축사도 나온다. 그것도 제법 덩치가 있는 일을, 실적을 올리려 한다며... 건축계의 존폐문제를 책임지고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의 건축문화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러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건축과 졸업생들은 모두 어찌고... 거꾸로 떨어지는 한국건축사의 위상, 위기의 대한민국 건축계... ■